



**더! 큰 인물  
더! 큰 강남**

**김성구**

**합리적 중도의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강남[갑] 선거구

책자형 선거공보



경제적 위치가 사람의 잣대가 되는 현실.  
윤택함을 좇아 앞만 보고 살아가는 세상.

하지만 경제적으로 성장했다고  
우리, 행복할까요?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행복과 더불어  
공동체 모두의 평화와 사랑이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그런 세상을 만듭시다.  
우리, 그런 시대를 만듭시다.

사람이 행복이고 행복이 희망인 강남  
김성곤이 당신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 사람이 행복한 나라

평화와 상생의 정치,  
그것이 꿈이었던

김성곤



## 1991년

미국 텁플대학교에서 종교학 박사를 취득한 후,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사무총장 등 인류 평화를 위한 7대 종단 협력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 1996년

영입인사로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초선의원이었지만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게 되었네요. 환경운동에 관심이 있었던 김성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 일했습니다.  
이어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장으로 일을 했지요.

## 2004년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사무총장을 하던 중 제17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튼튼한 국가 안보와 외교를 위해 국회 국방위원장, 외교안보시스템 개혁단장 일을 시작했네요.



## 2005년

열린우리당 재외동포 정책기획 단장을 시작으로  
현재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까지  
700만 재외동포들을 위한 길을 벌써 10년이 넘게 걸어왔습니다.

##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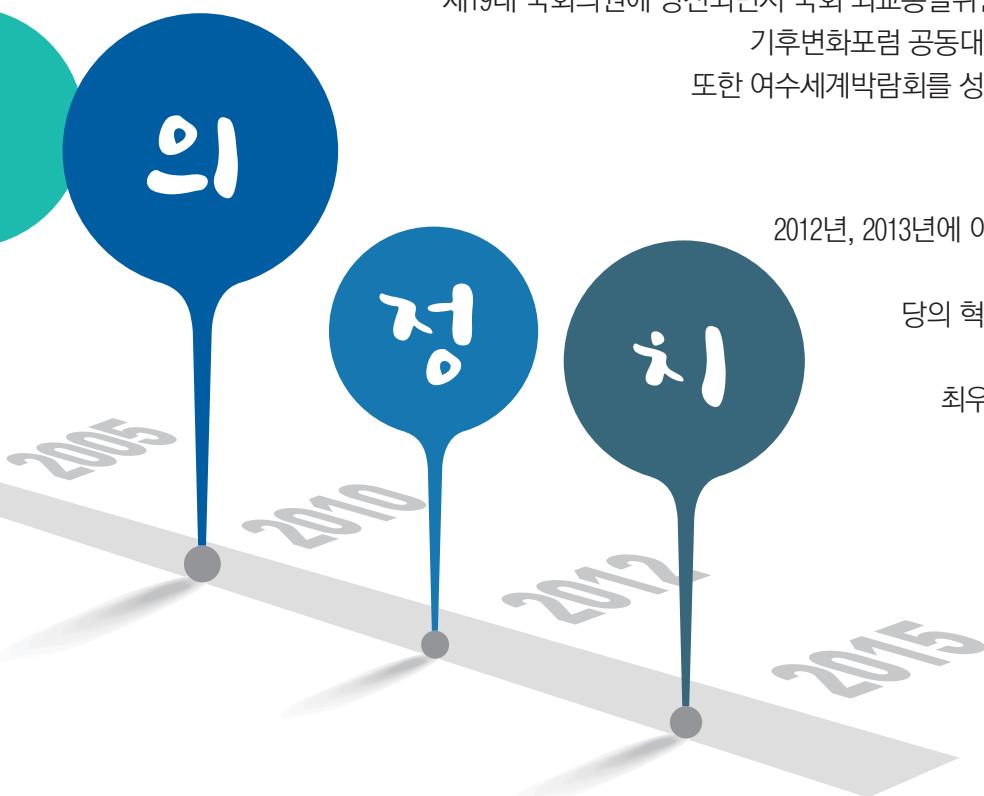
매니페스토 최우수상을 비롯해 마틴 루터킹 그랜드마샬 선정,  
종교평화상, 안중근 평화대상을 수상했네요.

##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과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직을 함께 수행했습니다.  
또한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하였습니다.

## 2015년

2012년, 2013년에 이어 2015년 전당대회에서도  
준비위원장직을 맡아  
당의 혁신과 화합에 앞장섰습니다.  
2015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외교통일분야)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 // 성곤아, 여수에서 한번 더 하지 왜 그 힘든 곳으로 가니? //

한평생 행상으로 나무껍질 같이 거칠어진 한 어머니의 손은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없이 위로를 건넸습니다.

네 번씩이나 지지를 보내주신 여수시민들께 작별인사를 건네고  
민주당에게는 험지 중의 험지라는 강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호남 기득권을 스스로 놓아버린 저를 보고 바보 같다고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아직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  
강남 그곳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층에도 물건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희망이라는  
길, 잘 향까..



2013년 4월 11일, 국회를 찾은 박근혜 정부 신임장관들에게  
박수를 쳐 격려하고자 제안하는 김성곤 의원

## “정치가 바뀌어야 경제도 살아납니다” //

경제가 죽어서 아우성입니다.

가계부채는 현 정부에서 1,207조원까지 늘었습니다.

경제성장을 자랑하던 보수정권의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경제를 살리자는 구호는 난무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 여당은 야당과의 타협보다는  
밀어붙이기 일쑤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가 화합해야 합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신임장관들에게

격려박수를 제안했던 것도

여야 간 극한투쟁의 정치행태를 먼저 바꾸지 않으면

결코 경제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 평생 정직하게 모아 이제 집 한 채 남은 건데, 내야 할 세금은 많고 무슨 법은 이리도 복잡한가요

- 불합리한 세금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강남 재건축 사업 추진에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겠습니다.
- 주거지역 종상향(種上向)을 통한 용적률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2

## 오가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강남구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부족하네요

- 관내 근린공원 내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 강남구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을 확대하고, '역삼청소년수련관'을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 자녀들의 해외유학 및 취업을 돋는 "청소년 글로벌 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 어르신들을 위한 '강남시니어플라자'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2회 수상

3

### 차 댸 곳은 없는데 단속은 많고, 막혀도 너무 막혀 짜증이 납니다

- 영동대로 통합개발을 통해 일대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대중교통 복합 환승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6개 광역 · 도시철도 환승 시스템)
- 자가용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강남구민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겠습니다. (국기원, 도산 안창호 기념관 지하 공간 등 활용)
- 신분당선 강남 ~ 신사 구간 공사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4

### 이태원으로 홍대로, 이제 강남 경제도 예전 같지 않네요

- 압구정 로데오거리, 논현동 가구거리, 영동전통시장 활성화와 국기원 랜드마크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한류스타거리(K-Star Road) 일대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로를 마련하겠습니다.
- ‘강남메디컬투어센터’ 운영 확대를 통해 강남구가 의료관광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 // 강남구와 서울시, 왜 이렇게 싸우나요? //

강남 독립선언에 영동대로 통합개발 문제까지,  
연일 강남구와 서울시 간의 싸움이 언론에 오르내립니다.

이제나 한전부지 문제가 해소되는 듯 싶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세텍(SETEC)부지를 놓고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그런 문제인가요?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모두 강남구민들을 위한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난 시간 이루지 못한 소통과 화합으로  
서울시와 함께 강남행복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누리당에 물표 줄수록 거울 사라지고, 정치 위상은 추락

## “1번 찍었는데 이름 몰라” 묻지마 투표가 부른 ‘강남 3구의 역설’

이쯤 되면 강남 3구의 역설이다. 선거에 이기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누가 나기도 당선이 확실하다는 새누리당의 뒷밥 강남 3구 이야기다.

새누리당에 이 지역은 확고부동한 걸로끼다. 어차피 이길 곳에 강한 후보를 투입할 필요가 없으니 찍쓸이 드려마가 이어질수록 큰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하는 역설을 낳게 됐다. 유권자 입장에선 새누리당을 외면하는 역설이다. 신(新) 정치 1번지로 불리며 거물들이

일합을 거ವ었던 과거는 과거로 남았다. 2013년 강남·서초·송파 등 3구에서 거수들인 지방세는 3조9006억원으로 서울 전체 25개 구 합계(13조8700억원)의 28.1%, 2011년 기준 강남 3구 명값의 총액(365조원)은 대한민국 전체 명값(3535조원)의 10%였다. 이에 비해 강남의 정치적 위상은 점점 초라해지고 있다.

이철재·추인영 기자 sealay@joongang.co.kr

#1 공무원 김모(55·서초)는 저택과 의원직으로 이사 옮겼다. 한 번도 강남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에게 차여구 국회의원의 이들을 물었더니 “찍었던 찍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겸색 한 뒤에야 이름을 떠올렸다. 서울 행정부동 주민 김모(55·아시아) 저택과 의원직으로 이사를 최근에야 알았다고 했다. “얼마 전 카페 배달원 ‘의회활동 보고서’를 보고서서야 ‘맞아, 이 사람이었지’라고 알게 됐다”는 것이다. IT 업체 회사원 김모(56·서울 압구정동)씨는 “언제부터인가 정치 산인원만 출마하고,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큰 정치인이 크지 못하는 것 같!”고 했다. 강남에서 40년을 살아온 자영업자 나모(47)씨는 “강남 유권자를 상당수는 ‘내가 국회의원 후보자들보다 훨씬 더 잘났다’고 생각한다. 요즘 무거운 감칠 수 있는 의원이 누가 있느냐. 그냥 막판에만 무기력증 짙은 거 아니냐고 말했어. 현장에서 들어본 강남 유권자들의 목소리에선 정치적 무기력증이 묻어났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 당시 야당인 민주자유당은 강남 3구 6개 지역구에서 단 한석을 건졌다. 강남은 전형적인 이도(野道)였다. 강남은 활동유세장에서 신정치개혁당 이선범 후보, 민주당 홍사덕 후보, 민주자유당의 김만석 후보(민족부대)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한 것을 계기로 새누리당 계열의 강세가 이어지더니 어느새 판세가 굳어졌다. DJ에 대란 불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과 진보 정권 10년을 거치며 쪘발하면서 보수 일派의 투표 성향으로 아지지게 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야당도 포함하지 말고 인을 발굴해야’

20대 총선 흥전전으로 새누리당이 길러지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진학공천은 없다”고 선언한 민粹 강남 지역에도 인위적인 새 피수혈은 없을 가능성이 크고, 19대 현역 의원들이 도전장을 삼으로 힘든 방어전에 나섰다. ‘새누리당 공천=당선’이란 의식이 여전한 민粹 본성보다 정신으로 자리질 예산이 더 뜨거울 전망이다. 강남갑에선 이중구 전 의원 등이 윤중조 의원에게, 강남을에선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과 원희목 전 의원 등이 김종훈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희선 의원이 불출마로 주인이 사라진 서초갑에선 이해운 전 의원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빛을 뒀다. 서초을에선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과 이동관 전 청와대 흥보수석, 정

(출처 : 중앙SUNDAY \_ 2016.1.31.)

## “강남에 야당의원 하나 만들면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동안 무엇이 나아졌습니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강남구에 배정된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0원’

(출처 : the300 \_ 2015.10.8.)

쉽게 당선되면 대충 일합니다.

주민보다 공천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강남에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강남의 진정한 발전이 시작됩니다.

더 큰 인물 김성곤이 더 큰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싹틔우는데 함께 해 주십시오!



| 프로필 |

- 1952년 출생
- 경기고, 고려대 후
- 美템플대학교대학원 철학박사(종교학)  
<수학기간 1985.1~1991.5>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장(前)
- 15,17,18,19대 국회의원(여수갑)
- 국회 국방위원장(前)
- 국회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국회 통상협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現)
-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現)
- 더불어민주당 강남[갑] 지역위원장(現)

더! 큰 인물 더! 큰 강남

김성곤

2

김성곤 선거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338 강남파라곤 1층 S101호(논현동 241-1) T 02-548-9353 F 02-548-9355



[www.kimsg.net](http://www.kimsg.net)



[blog.naver.com/sgkimwon](http://blog.naver.com/sgkimwon)



[fb.com/sgkimwon](http://fb.com/sgkimwon)



@kimsgnet

\* 이 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제작된 것입니다.